

2025.08.06

제약·바이오_Issue Comment



미 의약품 관세 최대 250% 부과 정책에 대한 해설

김민정 제약·바이오
02-709-2652
kim.min_jeong@ds-sec.co.kr

제네릭 가격 구조 및 실현 가능성의 관점에서

미국 제약 시장 구조: “고가 신약 vs 저가 제네릭”

미국 의약품 시장은 고가 신약과 저가 제네릭의 병행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 내 처방전 기준 약 90% 이상이 제네릭 의약품으로 채워지고 있으며, OECD 국가 중에서도 제네릭 가격이 가장 저렴한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러한 구조는 미국 내 높은 신약 약가를 유지하는 동시에, 대다수 환자들의 실질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즉, 미국의 healthcare system은 ‘비싼 신약과 싼 제네릭의 균형’ 위에서 운영되고 있다.

빅파마(혁신 신약) 생산 자립화는 이미 진행 중

최근 글로벌 빅파마들은 미국 내 생산 자립화를 위한 Capex 투자 및 기술 이전(Tech Transfer)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250% 의약품 관세 부과’는 의미가 미미하며 이미 대규모 미국 내 생산 투자를 진행한 빅파마 입장에서는 사실상 받아들이기 힘든 조치다.

제네릭의 미국 내 생산은 현실성 없음

제네릭 의약품은 특허가 만료된 이후 낮은 제조원가를 바탕으로 대량 공급되는 구조로, 인건비가 높은 미국 내 생산으로는 수익성을 맞추기 어려운 구조이다. 설령 일부 고수익 품목(GLP-1 제네릭, 바이오시밀러 등)이 미국 내 생산 전환을 추진한다 해도, 일반적인 항생제, 혈압약, 당뇨약 등 대다수의 저가 제네릭은 미국 내에서 제조단가를 맞추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해당 관세 부과는 제네릭 의약품 가격 상승 → 미국 healthcare 시스템 내 의료비 상승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미국이 유지해온 “고가 신약 vs 저가 제네릭”이라는 시장 논리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조치가 될 수 있다.

250% 관세에 대한 과도한 대응 지양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의약품 250% 관세 부과’는 실현 가능성보다는 정치적 협상 레버리지 성격이 짙다고 판단된다. 초기 의약품 관세는 ‘작은 관세(small tariff)’부터 시행됨을 언급하였으며 제네릭 관세 부과는 구조적으로 미국 내 생산이 어려워 가격 급등 및 공급망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미국 healthcare 시스템이 저가 제네릭을 통해 신약의 높은 가격을 상쇄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정치적으로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된다. 향후 section 232에서 트럼프가 구체적인 제네릭 또는 원료(API)에 대한 차등적 관세 부과 정책안을 내놓을지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발표된 수치에 과도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하고 대응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한다.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